

이젠 열린 교과서로 가는 길을 고민할 때

학습참고서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가 200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466건 중 85건의 휴대폰에 이어 학습교재 관련 불만이 76건으로 2위에 올랐다. 대구광역시 소비자들뿐만 아니다.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학습교재 구입비로 주름진 학부모의 목소리가 일간지 독자란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고, 각종 매체들도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물가를 앞지르는 사교육비 고공행진을 명절 교통대란 소개하듯 거르지 않고 내보내고 있다.

올해는 여론이 더 안 좋다. 지난 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학교 교재 채택비리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7개 고교 교사들은 평균단가가 4,000~5,000원인 교과서를 채택해주는 대가로 해당 서적을 구입한 학생 1인당 1,000~1,500원을 도서 총판업체로부터 채택료 명목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수업시간에 부교재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학생과 학부모)에게 가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참고서 출판사 “그게 아니잖아~”

뿐만 아니다. 엮친 데 덮친 격으로 교복을 둘러싼 담합이 공론화됨으로써 이참에 학습참고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학습참고서에 대해 말만 꺼내도 학부모들이 흥분하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EBS 교재 등 학습참고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학습교재 판매가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학습참고서 업계로서는 속이 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학습참고서가 사교육비 상승을 조장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택상 틴뉴스 편집장은 “학부모들이 학습참고서에 대해 느끼는 불만은 ‘학습교재’라는 광범위한 용어사용에서 온 오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학습교재’의 종류를 ‘자격증 취득 교재, 유아용 교재, 학습지, 어학 교재, 학생용 교재’로 세분화하고

있다. 참고서와 문제지 등 수험서는 학생용 교재에 속한다.

김 편집장은 “소보원에서 집계하는 ‘소비자의 학습교재 피해사례’는 자격증 취득 교재, 유아용 교재, 학습지, 어학교재, 학생용 교재 등을 모두 포함하는 피해사례”라며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러한 설명 없이 보도하다 보니 일반인은 ‘학습교재’를 단순히 ‘학습용 교재’로 받아들여 학습자료의 소비자피해사례가 많고 학습자료 구입비용도 실제보다 훨씬 과다하다고 오인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대구 소비생활센터의 발표 내용이 바로 그런 경우다. 관련기사에 ‘학습자료’라고만 되어 있지 그 안에 세부사항은 구분하고 있지 않아 신학기를 맞아 학습참고서의 구입으로 가계지출이 많은 학부모로의 입장에서는 학습 참고서가 문제가 많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주요일간지의 기사는 학원비, 학습지 등 세부항목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 생긴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EBS는 흥하고 출판사는 망하고

뿐만 아니라 학습교재 출판의 시장 현황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기도 하다. 물론 학습참고서는 출판 중에서 상품 차별화가 상대적으로 작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분야에 속한다. 대형 출판사만이 시장에 살아남는 소수 과점적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출산율의 감소와 입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시장축소, 위성방송, 학습 전자출판물, 학습의 인터넷 활용도 증가 등에 의해 학습참고서 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축소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습참고서가 사교육비 인상요인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등학교의 참고서 정가가 높은 것인데도 한국출판연감의 학습참고서 통계가 학교급별로 발표되지 않다 보니 고등학교 참고서의 정가도 매우 높은 것으로 오인되어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7% 올라 2004년 2월의 6.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학교 참고서와 초등학교 참고서 가격이 각각 3.2%와 4.9% 인상된 것에 비해 고등학교 참고서 가격은 1년 전보다 0.6% 오르는 데 그쳤다.

표1) 최근 10년간 학습참고서 추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발 행 종 수	256.7	227.5	197.2	143.6	100.0	104.6	144.9	120.7	92.8	119.9
평균 발행부수	176.8	171.8	128.2	100.3	100.0	126.9	105.8	111.9	120.8	81.4
평균 정가	59.4	82.1	61.5	66.2	100.0	96.3	181.8	96.2	66.7	56.5
평균 면수	91.2	96.1	94.5	103.9	100.0	106.6	94.5	95.0	109.9	112.2

* 이 표는 2000년을 100으로 기준하여 비교한 것임.

학습참고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시민단체와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공영방송인 EBS의 수능교재 내용을 수능 시험에 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4년 2월 17일 취해진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의한 것이었다.

EBS 방송교재로 인한 학습참고서의 시장의 축소는 일반 단행본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학습참고서 회사가 그동안의 안정적 수입이 사라지자 자본력을 앞세워 단행본 시장으로 뛰어 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서점의 폐업 가속화의 요인으로 학습참고서 판매의 침체를 빼 놓을 수 없다.

윤청광 전 한국출판연구소 이사는 “학생 수 감소와 학생들이 학습참고서 대신 보습학원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현상 등 공교육의 실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학습참고서 판매의 침체는 중소서점, 특히 학교 앞에 주로 위치한 중소서점의 폐업 가속화에 큰 요인이 되었다. 중소서점 매출

의 50~70% 정도가 학습참고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판계가 흔들리고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는 사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폭리’와 ‘돈 잔치’를 벌렸다. 감사원이 2005년 6~7월 ‘한국교육방송공사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능교재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출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산정해, 2004년도 수능교재 출판이익으로 출판비용 189억 원의 두 배가 넘는 382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이전인 2003년 이익의 2.4배에 이르는 액수로 EBS는 판매이익 중에서 직원 성과급으로 43억 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수능교재 판매를 직접 담당할 총판을 선정·관리하는 과정에서 직원 A씨는 5개 총판에서 8회에 걸쳐 1,060만 원을, B씨는 5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사모에서도 “학습참고서가 출판사의 지역구 장사라면 EBS 교재는 나라가 나서서 하는 전국구 장사”라며 EBS 수능교재의 가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학습참고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학습참고서에 대한 부담은 부담대로 늘어나고 있고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대한 불신은 불신대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출판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학습참고서를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습참고서가 출판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식습득에 미치는 영향이 교과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참고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표2) 학습교재 분류

대분류	중분류	사용 장소	세분류
학습교재	교과용 도서	학교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
	학습자료	가정	학습참고서(단행본 형태)
			학습지(집지 형태)
			기타 학습자료(디스크책, 화면책 등)
	기타 학습교재	학원+가정	학원 교재(종합학원, 단과학원, 온라인학원)
			어학 교재
			자격증 교재
			방송 교재

달린 교과서관을 열리라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종이로 된 교과서를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 뒤 2013년까지 초등 3학년부터 고교까지 모든 교과서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다음 날 바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디지털 교과서가 인터넷 중독과 학생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아 오히려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발표는 교과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바로 ‘열린 교과서관’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개방형인 영미권 교과서와 달리 압축형이다. 최소한의 지식이 담겨있어 결국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서는 보다 풍부한 내용과 설명을 담은 학습교재가 필요하게 된다. 학교의 정규 과정에 사용되는 교과서 이외의 학습참고서의 역할은 이제 교과서의 보조재 역할이 아닌 대체재의 역할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학습참고서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교과서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모경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동일시하는 ‘달린’ 교과서관을 받아들이고 있어 교과서는 경전처럼 신성시되고 주입



식 수업의 수단이 된다”며 “이와 달리 교과서를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하나의 자료로 보는 ‘열린’ 교과서관으로 접근해 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을 매개해 주는 수단 정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과서는 신성시해야 할 경전이 아니라 수업 활동에서 활용하는 하나의 학습 자료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명지고등학교는 기존의 교과서를 새롭게 구성한 ‘자득형 학습교재’ 작년 2학기부터 사용해 오고 있다. 두 배쯤 되는 볼륨에 따로 설명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를 담았다.

명지고 배병배 교재개발실 부장교사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재 개발이 필요했다”며 “이 교재를 사용한 결과 과외 학생 14% 감소했고 일반 학습반(명지형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학급) 대비 과목별 평균 10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론 학습참고서를 둘러싼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지점과 총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출판유통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과서에 있다. 만약 정부 검인정 교과서를 이처럼 참고서와 결합된 형태로 만들 경우 학생들은 따로 학습참고서를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 주도의 문제은행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박양규 씨는 <한국 학습 참고서 출판현황에 관한 연구>라는 학위논문을 통해 “한 교과목 당 평균 2~3권의 학습 참고서 및 학습교재를 구입하는 이중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며 “각 출판사별 문제 데이터를 수집, 축적, DB화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관련 참고서를 여러 권 구입하는 문제를 해소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잡는 논술?

물론 열린 교과서가 된다고 학습참고서로 인한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바뀌는 입시제도가 바뀌게 돼 출판계에 EBS방송교재에 따른 파장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

에 수우미양가 등의 평어가 사라지고 수능과 같은 9등급제가 적용된다. 수능시험에서도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이 제공되었던 것이 앞으로는 성적통지서에 영역별/과목별 등급만 표기된다. 이렇게 되면 수능시험 점수로 학생선발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대학별로 학생부나 논술, 면접 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학습자료 출판업체는 수능시험을 시험에 맞춘 고3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고 1, 2를 중심으로 한 내신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중간 기말고사용 기출문제집이나 예상문제를 다룬 학습자료의 기획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 단행본 출판사들로서도 논술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논술 관련 전락서와 읽기 교재 등 논술고사 대비용 단행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으로 학습참고서 시장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논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교재’ 시장은 큰 폭으로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판계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장이 축소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교육이 더욱 복잡해지고 또 그 비용도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교보문고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물론 책을 많이 읽어야 하다는 데는 백번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학교도서관 등 관련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을 강화한다고 하면 결국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 이 원고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료 출판 현황에 관한 연구>(김택상, 2005,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와 <한국 학습 참고서 출판현황에 관한 연구: 중고등 학습 참고서를 중심으로>(박양규, 2003,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를 기초자료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취재: 신동섭(출판기획자)